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4회연속 ‘문체부 우수기관’ 인증

광주 역사로 전시·교육하는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 호평  
시민참여형 전시 기획·맞춤형 교육 등 접근성·만족도 향상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광주의 역사로 전시·교육하는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로 호평을 받았다.

광주시는 역사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 운영 역량과 공공성을 입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종합 점검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국가 제도로, 지난 2017년 처음 도입돼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문체부는 올해 전국 304개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교육 운영, 소장자료 관리, 조사·연구, 조직·인력 운영,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2017년·2019년·2022년에 이어 2026년까지 4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시민 참여형 전시를 기획해 광주의 역사와 민속,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일상 속 이야기로 풀어나간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시민 접근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의 역사·민속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연구해 전시와 교육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이는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정책 방향인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 확대’와 부합하는 우수 운영 사례로 꼽힌다.

수 운영 사례로 꼽힌다.

이부호 광주역사민속박물관장은 “우수기관 4회 연속 인증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자, 시민과 함께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기록해 시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열린 공공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7년 개관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본관을 비롯해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 무등산 분청사기전시실 등에서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공공문화 향유의 장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박물관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고, 광주의 역사문화 자산을 미래 세대와 공유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나아가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사민속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4회 연속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 운영 역량과 공공성을 입증했다.

## 포스코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 발대

취약계층에 핸드타일 전달

포스코광양제철소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2026년 재능봉사단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광양제철소 48개 재능봉사단원과 지역에서 정인화 시장, 최대원 시의장, 김재경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이준재 광양시 장애인복지관장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제철소 재능봉사단은 지난 2014년 창단돼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환경정화, 의료, 이·미용, 생활환경 개선, 식료품 전달 및 생필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다.

발대식에서는 올 한해 봉사단의 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으며 실효성 있는 봉사를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리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또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주방용 핸드타일 200개를 직접 제작해 8개소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다.

제철소는 올 한해 재능봉사단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동행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광양제철소 관계자는 “봉사단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광양제철소와 광양시 간 상생의 스토리가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광양제철소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며 더욱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부서장 토론회가 개최됐다.

## “기존 방식 혁신…농어촌 지속가능 미래 열자”

농어촌공사, 전국 부서장 토론회…안전실천 결의  
성과창출 방안 등 논의·국민 편의 증진 전략 모색

한국농어촌공사가 안전 경영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사적 실천 결의를 다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김인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사·지역본부·지사·사업단 부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부서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사의 핵심 과제인 ‘안전 경영 확립’과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 공유와 안전실천 결의대회,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공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안전관리 핵심 방향을 공유

했다.

공사는 안전 관리체계 정비, 현장 작동성 강화, 교육 확대와 총출력 지원, 내실 있는 점검과 강력한 제재라는 4대 중점 과제를 실현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김인중 사장의 안전 레드라인 선언을 시작으로 부서장들이 안전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2부에서는 농어업·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과 성과 창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 참석자들은 올해 업무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BP)를 공유했다.

이를 토대로 ‘KRC-AX 추진전략’, ‘디지털 기반 물관리 체계 구축’ 등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어민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성공적 이행전략을 모색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회에서는 주요 안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가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안전 관리체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 요건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주=조함진 기자 pose007@



## 건협 광주전남지부, 사회공헌 검진 전개

아동복지시설 일맥원 대상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아동복지시설 일맥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돌봄과 학습을 병행하는 생활공간에서 지내는 아동들의 신체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성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아동들에게 정기적인 건강 점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검진 항목은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함께 혈액 및 소변 검사, 흉부 X-ray 촬영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아동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다각도로 확인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예방 의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포스코광양제철소는 광양시 커뮤니티센터에서 2026년 재능봉사단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염염,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부음** ▲국대(향년 85세) 씨 별세. 이점순씨 남편상. 장운호·장애란·장지영(광남일보 편집국 편집부장)·장현진·장현주씨 부친상. 김광영·조용창·이기상·권의겸씨 장인상 = 26일 오전 7시44분, 광주그린장례문화원 VIP실. 발인 28일 오전 9시. 장지 광주영락공원. 062-250-4455. ▲신조준씨 별세. 김용배·원배·양배(전남일보 취재국 선임부장)·송배씨 모친상 = 27일 오후,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1호. 발인 29일 낮 12시 30분. 장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선영. (062) 527-1000.

## 운세 (음력 12월 10일)

띠  
 쥐

48년생 때때로 마음이 변하니 진중하게 판단  
60년생 모든 일에 기쁨을 만끽하는 좋은 날  
72년생 초지일관하면 그 일 이루게 된다  
84년생 도움을 청해도 상대는 회답이 없다  
96년생 뜻하지 않던 황재수가 있다  
51년생 욕심을 부린다면 화를 부를 수 있다  
63년생 변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75년생 노상에서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87년생 부득신 거래 허침이 보인다  
99년생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말 조심하라  
54년생 아랫사람이 도와주니 이익이 있을 것  
66년생 자녀 일로 구설수에 오르니 자중하라  
78년생 교통사고 특히 적색 차 조심하라  
90년생 직장에 기쁨이 가득할 것

띠  
 토끼

57년생 나의 고통은 내가 초초한다  
69년생 꾸준하면 일취월장한다  
81년생 반등하게 되니 차분하게 지켜보라  
93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띠  
 소

49년생 금전에 이익이 있고, 남과 다툼이 있다  
61년생 미흡하더라도 일단력을 짓고 볼 일이다  
73년생 문서문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  
85년생 금전 융통이 어려워 전전긍긍 하는 날  
97년생 조건에 따른 변수가 있다  
52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를 것  
64년생 어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이 중요하다  
76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88년생 수입 생기고 생기는 일은 해결 될 것

띠  
 용

55년생 빛 독촉으로 상심하게 되리라  
67년생 배우자와 말다툼을 주의하라  
79년생 일단 맛있는 것부터 먹어라  
91년생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날  
58년생 저절로 이뤄질 것이니 보고 있으면 된다  
70년생 적극적으로 하면 훌륭한 성과 기대된다  
82년생 친구들이 귀하에게서 멀어지는 운이라  
94년생 이성 관계 화를 부르게 된다

띠  
 개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띠  
 호랑이

50년생 가 바야만 남득 할 수 있을 것  
62년생 변하지 않으니 반드시 뜻을 이루는 것  
74년생 의심스런 투자니 경계하라  
86년생 원하는 단계를 이르게 된다  
98년생 가족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라  
53년생 특별히 유년해야 뒤일이 안 생긴다  
68년생 모색하다보면 숙원을 이루게 될 것  
77년생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89년생 금전보다는 우정을 먼저 생각하라

띠  
 뱀

56년생 유혹당하면 크게 후회되는 일이 있다  
68년생 지인에 힘을 얻어 일취월장 발전한다  
80년생 그 일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92년생 동료는 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라  
59년생 일을 결행하기 전에 자녀를 생각하라  
71년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라  
83년생 무모한 일을 벌이지 말라  
95년생 일이 꼬이고 막혀 감잡하고 괴로운 날

띠  
 돼지